

轉換期를 맞이한

農業基盤造成事業의 當面課題

金 泰 洙

(農水産部 農地局長)



1. 序 論

요즈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共通의인 話題는 세상 빨리 變한다는 것이다.

變한다는 것, 이말은 發展하고 있다는 뜻을 가장 많이 包含하고 있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世上이 이렇게 빨리 發展하고 變하는데 農業이라고 變하지 말라는 法은 없을 것이고 農業이 變하는데 우리 農業基盤造成事業이 30年前이나 20年前 혹은 10年前과 오늘이 같을 수야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항상 變하는 世上事에 따라 우리의 農業基盤造成事業도 繼續의인 發展과 變化를 가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는 農業基盤造成事業이 轉換期에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異口同聲으로 말하며 느끼고 있는가?

○ 工業이 農業보다 投資效果가 높아서.

○ 農業基盤造成事業이 이제 어느程度 水準에 이르렀으며 主觀의 自給度가 높아 졌으니까.

○ 연이은 4년간의 大豊이.

○ 많은 사람들이 轉換期에 왔다고 말하니까.

○ 今年度 豫算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해서.

○ 豫算分野나 一般 經濟專門家들이 比較優位論을 펼친다 해서……

물론 이러한 것들이 原因이 되어 우리 農業基盤造成事業이 轉換期에 왔다고 말한다해서 틀렸다고 몰아 세우거나 또 그것이 主要原因이 되고 있음을 굳이 否認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 事業을 轉換點에 서게 했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를 꼭 짚어 말하라고 하면 모두가 망

설이고 말 것이다. 왜 그럴까?

그 理由는 간단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事業의 發展을 위한 努力이 不足했거나 轉換期에 서게 한 外部의 事由들이 복잡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周圍의 産業과 經濟가 우리 農業基盤造成事業보다 빠른 速度로 發展 하면서 우리 事業을 오늘과 같은 轉換點에 서도록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2. 轉換點이란

그러면 무엇을 轉換點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그동안 우리 農業이 轉換點에 왔는가 보다하고 推象的으로 생각하고 있던 筆者가 어느날 報道媒體를 通하여 두가지 事緣을 보고서 과연 우리가 轉換點에 서있구나 하고 實感한적이 있다. 하나는 農村青年이 자기가 살고있는 시골에서 農事만 짓고 있으면 시집 온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都市에 임시로 나가서 簡易就職을 한후 都市의 처녀를 신부감으로 골라 結婚한후 다시 故郷으로 내려간다는 事緣이고 다른 하나는 시골 青年이 新聞이나 雜誌에 장가들 생각이 고른다는 광고를 내고 있으며, 農村에는 장가 못든 노총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이라는 우리 이웃의 先進國에서도 한동안 農村青年이 오늘의 우리 農村 青年들처럼 장가들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러한 現象이 國民所得 5,000\$을 넘어선 후 서서히 解消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지만은 과연 우리 國民의 所得水準이 5,000\$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農村青年이 장가들기 힘들다는 말일까?

그러면 왜! 장가들기 힘들까? 이것은 오늘의 우리 農村이 어렵다는 것을 單적으로 證明하는 事

實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農村靑年이 장가들기 힘들다는 事實 하나가 오늘날 우리 農村 現實의 全部를 뜻 한다거나 또 農業과 農業生産基盤造成事業이 轉換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農業만의 責任도 아니며 더더욱 農業基盤造成事業만의 責任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責任의 一部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 農村이 都市보다 所得이 높고 살기가 좋으며 일하기가 편하다면 이러한 福祉農村建設을 위하여 變化를 要하는 時期가 바로 우리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事業이 轉換點에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農業基盤造成事業의 現況

農村所得과 生活環境改善 問題는 農業外的인 要素가 많이 작용하며 또 우리 農工人의 立場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農村에서 農事 짓기가 쉬워야겠다는 것은 우리의 責任이 莫重하다고 생각된다.

農村에서 일하기가 쉬우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農業基盤造成事業을 施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施行하여야 하나? 지금처럼 水稻作을 위한 中心의 單位事業을 爲主로 農業用水를 우선 開發하고 그리고 나서 耕地整理를 施行하고 그다음에 浸水常習地域은 河川을 整備하거나 排水改善事業을 着手하고 農産物을 搬出하거나 營農資材를 運搬할수 있는 道路를 追加하고, 이런식으로 한가지 事業이 끝난후 또 必要한 다른 事業이 시작되는 單位事業別 施行 方式를 反復的으로 취해야 할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方法을 講究해야 할 것인지?

이제 우리나라의 經濟規模도 상당한 水準에 이르렀고 發展을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 農工人의 技術水準과 人力資源도 豊富한 現時點에서 60年代나 70年代에 始作된 形態의 事業을 그냥 持續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다른 産業이나 事業 發展에 副應할수 있고 같이 競爭하여 이길수 있는 體系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4. 앞으로의 課題

便利한 營農, 收支가 맞는 農業, 그래서 우리의

農村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가장 寄與한 이 높은 事業, 農業基盤造成事業을 앞으로 어떻게 展開해야 될까? 筆者의 아둔한 생각으로는

첫째 우선 農耕地의 擴大 및 保全이라고 본다. 아무리 農事를 짓고 싶고 農家 所得을 올리고 食糧을 增産하고 싶어도 農事지를 땅이 없다면 그것은 물거품 같은 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政府는 '85년도에 農耕地의 外延의 擴大를 위하여 西南海岸에 무진장으로 펼쳐있는 干拓地(40萬/ha)를 開發하고 國庫 以外的 財源인 代替農地造成基金을 300億 원이나 投資하여 忠淸南道 保寧郡의 藍浦地區를 비롯한 4個地區 9千ha를 新規 着工하였고 앞으로 農耕地를 의면적으로 擴大함에 寄與도가 가장 높은 干拓事業을 더욱 活潑히 推進할수 있도록 11千ha의 干拓對象地에 對한 調查事業을 始作하였다. 또한 農地를 擴張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既存의 좋은 農耕地를 保全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본다. 國家經濟 規模가 膨脹되고 都市가 커지며 人口가 增加되고 産業構造가 高度化됨에 따라 住宅用地 工場等의 施設用地 道路, 公園, 休養地等의 公用 및 公共施設等 國民生活安定과 情緒醇化에 必要不可缺한 土地需要 充足을 위한 農地轉用을 最大한 抑制하여 農地以外的 다른 땅을 活用하도록 유도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지난 '76년도부터 '83년도까지 8년동안 農地中에서 다른 分野로 轉用된 面積은 年平均 1萬4千ha였고 開墾이나 干拓으로 새로히 만들어진 農地는 5千ha로서 年間 9千ha의 農地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每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農地의 他目的 轉用을 抑制하기 위하여 絶對農地의 整備과 代替農地의 減免對象 縮少 및 單價引上으로 代替農地造成基金을 擴大 造成하는 등 制度的 裝置를 強化토록 하여야겠다.

두번째 事業施行 方法의 變化가 要求되고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農業도 다른 産業과의 競爭에서 이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産業이 다른 産業과의 競爭에서 이겨야만 發展하고 있는 이때 우리 農業이 他 産業과의 競爭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항상 어려움만 남게 될 것이다. 農業이 다른 産業과의 競爭에서 이기려면 單位面積當 生産量과 所得이 높아야 하고 時間當 作業量을 지금보다 훨씬 增大시켜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轉換기를 맞이한 農業基盤造成事業의 當面課題

便利한 營農이요 다른 產業과 競爭할 수 있는 힘을 附與하는 길이다. 便利한 營農을 위해서는 農業의 機械化가 前提條件 일 것이다. 農業을 機械化하기 위해서는 農家の 經濟與件이나 經營規模, 農村 및 國家, 社會 與件도 重要な 要因이 되겠지만 農地를 機械作業이 쉽도록 整備하는 것이 第一 重要的 先決問題라고 본다. 農業用水가 없는 곳은 물을 確保하고 浸水常習地에서는 洪水被害 防止對策을 樹立하고 機械가 每筆地마다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道路網을 파고 機械作業의 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地上水位를 낮추고 機械 回行比를 勘案한 區劃整理를 하고.

그러면 이러한 모든 事業을 水稻作 爲主만으로 單位事業 形態로 推進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綜合的으로 推進해야 바람직 할 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國家 經濟發展과 우리 農工人의 技術 水準으로 보아 이제 從來의 單位事業別 推進方法과 用水開發, 耕地整理, 干拓, 開墾, 排水改善, 道路網整備 등의 모든 生産基盤施設을 필요시 논에 밭작물을 栽培할 수 있도록 土地를 凡用化 내지 多用途化 할 수 있는 水準까지 包含한 農地의 綜合開發計劃을 相互 比較하여 採擇할 時期가 到來했다고 보며 밭에 대한 灌溉施設, 區劃整理, 農路整備等 밭작物의 安定的 生産을 위한 基盤整備事業도 時急한 當面課題라고 생각된다.

세번째 지금까지 開發, 蓄積된 技術을 土臺로 우리의 實情에 맞으며 事業費를 더욱 效率的으로 執行할 수 있는 새로운 技術開發이 要請된다는 것이다. 開發途上國은 어느나라 어느사회를 막론하고 初期 發展過程에서는 先進國의 技術을 直輸入하여 模倣하거나 踏襲하는 것이 常例였으나 이제 우리의 모든 水準이 남의 것이나, 옛 것을 模倣하고 踏襲하면서 自足할 때는 지난것 같다. 그러므로 技術者 個人이 努力하고 研究하여 自己의 實力을 키우는 것은 물론 새로운 技術을 배우고, 접할 수 있도록 國內外 研修機會를 擴大하고 우리 實情에 맞는 새로운 工法開發과 改善에 힘써야겠다. 우리는 과거 數年間 技術開發, 工法改善等を 상당히 힘써 努力하고 推進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客觀的으로 볼때 큰 成果가 있었다고 自負할 수 없음을 솔직히 是認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研究分野에 從事하는 分들을 中心으로 不斷한 試驗과 研究에 沒頭하는 것은 물론 行政機關과 學會, 學校, 技

術研究所 등이 서로 協助하여 研究事業을 強化하는 등 研究零團氣 造成이 必要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發展된 技術, 첨단적인 技術을 우리의 사업에 적용하므로써 豫算을 效率的으로 執行함은 물론 外國에 輸出할 수 있는 技術 輸出國의 面貌를 더욱 強化하여야겠다.

끝으로 우리가 現在 推進하고 있는 農業基盤造成事業이 農家所得을 올릴 수 있고 農村生活環境을 改善할 수 있는 農業構造改善 分野까지 包含한 事業施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農村의 所得이 낮은 것은 耕地面積이 좁다든지 農業生産費가 높은 것 등 農業內部的 構造의 脆弱性 때문에 農業所得 增大에 限界가 있음과 農外所得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水稻作 爲主의 農業形態를 가지고 있는 이웃 日本은 農外所得이 80%를 웃돌고 있으며 대만은 7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40% 미만에서 맴돌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農外所得을 높여서 農家所得을 올리고 國家의 均衡發展을 위해서는 그地域 農村實情에 맞는 工場 등 農事以外에 副業을 가질 수 있는 社會與件 造成이 必要하다. 工場을 세우는 經營者의 立場에서 볼때 利益을 남기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工場稼動을 年中 계속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農村의 現實이 農繁期에 工場에 나가서 農外所得을 올릴 수 있는 일손이 있다고 보십니까? 農繁期에 農村일손이 없어 公務員, 學生, 軍人들이 動員되어 農村일손을 돕고있는 現實을 勘案할 때 이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다섯사람이 하고있는 農事일을 두사람이나 한사람이 할 수 있도록하고 남는 세사람이나 네사람은 工場에 나가 일할 수 있는 與件부터 造成되어야 한다는 意見이다. 그렇다면 農村 일손을 줄일 수 있는 農業基盤造成事業이 먼저 施行되어야만 農外 所得을 올릴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側面에서 볼때 '84년도 부터 擡頭되기 始作한 農村地域綜合開發事業이나 農村所得源開發事業 및 農工團地造成事業을 單一事業別로 推進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현재 推進하고 있는 各種 農業基盤造成事業과 連繫시켜서 推進하되 流通網과 農村의 厚生, 福祉, 教育施設等 農村生活環境改善事業을 包含하는 등 農業構造改善 側面에서 事業을 推進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5. 맺는 말

앞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變하는 것은 發展하고 있다는 뜻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時期라는 뜻도 경우에 따라 多분히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農業基盤造成事業이 轉換期에 서있다는 것은 어려운 時期를 맞이하였다는 뜻으로 解釋되는바 이 어려운 課題를 헤쳐나가려면 어느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본다. “白紙張도 맞들면 낫다”라는 俗談과 보통사람 셋이서 서로의 지혜를 모으면

문수보살(文殊菩薩)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리의 俗談을 거울삼아 轉換期를 슬기롭게 克服할 수 있도록 우리 事業을 擔當하고 있는 行政機關이나 有關기관(有關機關), 그리고 農工學會나 學校等 各級 研究機關에서 農業基盤造成事業과 關聯을 맺고 계신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智慧를 모으고 相互協助하여 農業基盤造成事業의 發展이 國家發展에 礎石이 됨을 認識하고 積極的인 姿勢, 協助하는 마음, 研究하는 精神으로 말은바 所任에 最善을 다해야 겠다.